



# 順天金氏宗報

호 2000. 4. 15(토)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발행인: 김중식/편집장: 김명환/138-160 서울특별시 중구 가락동 78-1번길 한화빌딩 303호/전화: (02)400-2501~2502/FAX: (02)400-

## 大同譜 重刊에 즈음하여



우리 人間이 言辭나 行動을 彝倫에 어긋나지 않게 行할 수 있기에 萬物의 靈長이라 하는데 干姓 萬族 中의 一員으로 있는 自身의 位相을 가릴 수 없다면 그 얼마나 虛荒하겠습니까. 그래서 文明이 進歩함에 수반하여 各家門의 內력을 族譜라는 譜牒으로 만들어 傳承하여 後孫들로 하여금 自己 家門의 內력을

살피 自己 位相을 찾게 하고, 自矜心을 가지고 삶을 營爲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우리 順天金門에서도 200여년 전 先祖들께서 처음으로 甲申譜를 편찬 刊行한 이래 丁巳, 丁卯, 丁酉, 甲子譜 등 年次의 으로 그리고 發展的으로 補充刊行되어 오늘날까지 傳承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훌륭한 祖上의 後裔인 順天金門의 一員임을 自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宗譜에 제가 "우리가 어려운 時期임에도 오늘날 슬기롭게 克服하고 있음은 亂世일수록 毅然하게 品位와 忠義, 節義를 지키신 祖上님들의 懿德이 우리 後孫들에게 發顯됨이라 생각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矜持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先祖들께서 編纂刊行하신 舊譜를 概觀만 해도 先祖들의 忠義와 節操 그리고 孝悌의 行蹟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德目은 모두 우리 後孫들에게 물려주신 高貴한 教訓이며 우리는 이 教訓을 傳統이 되게 繼承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라도 지녀야 할 것이며 이는 곧 祖上을 崇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數次 修譜하는 過程이 있었지만 이십계도 上系 10여代는 未詳하여 連繫登載할 수 없었으니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既往에 提示된 上系代 資料가 있었지만 考證할 길이 없어 受用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또 다른 派에서 그와 類似的한 資料를 提示해와 여러 方面으로 檢討한 바 妥當性이 窺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門中重鎮 모임을 수차례 열어 討議를 거듭하여 끝내는 수용함이 좋겠다는 意見들이었습니다. 그런데 一部 重鎮께서 좀더 慎重을 기하기 위해 이 方面에 造詣깊은 某某宗親에게 研究케하여 그 분들의 意見에 따르기로 하자 하여 史界에 權威있는 宗親인 精神文化研究院의 金東柱 교수에게 研究를 의뢰하였습니다. 金교수 또한 宗門의 重要 事案이라 기꺼이 받아들여 史學者이신 宗親 龍田先生의 자문을 받아가며 장기간 集中的으로 研究하여 몇몇 考證資料를 찾아내는 등 기왕에 提示된 上系代 資料가 근거있음을 확인하고 다음 表와 같이 上系代를 定立하는 結論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30日 各派 重鎮 30여분이 모인 會合에서 金東柱 교수가 직접 나와 上系代에 대한 研究報告를 하였으며 參席者 모두는 그 案에 首肯하고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信憑性있는 考證 資料가 없는 한 다음 表와 같이 우리의 上系代를 잠정 定立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紙面을 빌어 다시 한번 金교수의 勞苦에 感謝 말씀드립니다.

譜時 未參했던 宗派도 기꺼이 參與 合譜기로 하였으니 매우 경하할 일이라 하겠습니까.

이번 大同譜 重刊의 趣旨는 간단히 말하여 上系代를 定立하여 전체 宗派가 참여 合譜함으로써 많지 않은 우리 族親이 大同團結하고, 나아가 族親間의 和睦을 증진하며 또한 後世들이 족보를 閱讀 理解하기에 좀더 용이하게 하여 先祖님들의 勳業과 德行, 孝悌와 勉學 등 高貴한 行蹟을 읽음으로써 崇祖敬親하는 마음을 고취함은 물론 自矜心을 높이고 龜鑑이 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現存하는 譜冊은 純漢文體여서 세 世代後孫들로는 關心이 소홀해지고 기껏 이름자나 찾아보고마는 정도이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게 文體를 國·漢字 混用한 國文體로 하며, 形式도 橫書體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간결한 體制가 되도록 合意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3월 30日 重鎮會議에서 編纂委員會를 再構成하고 推進機構(別表)와 日程을 合議하였습니다. 이번 4月中으로 編纂委員會를 열어 編纂의 基本事項을 協議하고 實務에 중시할 專門委員과 收單委員이 선임되는 대로 본격적업에 들어가 今年末까지 收單作業을 일단락 짓고 來年 6月限 校訂, 編輯, 筆寫 등 과정을 거쳐 草稿를 完成 印刷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再校訂을 거쳐 印刷, 製本이 되면 來年末부터 配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중앙 종친회에서는 전라남도 순천에 자리잡고 있는 동원제의 별채를 새롭게 마련하여 우리 조상의 정기를 드높이고 아울러 금년 여름 대학생 하게 강좌를 더욱 활성화함과 동시에 종친들의 대동화합을 굳건히 하려는 높은 뜻을 펼쳐나가고자 이미 35평이나 되는 건물을 시공하여 하계 강좌 전에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過程은 오직 宗親 여러분의 協助 없이는 이를 수 없는 일이며, 모쪼록 아낌없는 支援과 聲援을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順天金氏中央宗親會長 金鍾植

### 김정일(金政壹) 박사님 500萬원 快擲



현재 고려상건(商建) 대표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일 박사께서 회관 건립을 조속히 완공하려는 충정으로 一金 五百萬원을 쾌척하셨습니다.

그 높으신 조상에 대한 孝心에 깊은 感謝를 드리며 김박사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祈願하겠습니다.

연락처: 고려상건 대표  
062) 373-7166, 7177

# 順天金氏 大同譜 重刊趣旨

宗親先賢들께서는 그 동안 유리되다시피한 우리 順天金門의 甲子大同譜를 刊行하는 大業을 이룩하시어 族親들로 하여금 自己의 位相을 確認할 수 있게 하고 顯祖들의 世德을 밝히어 祖上 崇慕의 念과 矜持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십계도 上系代가 비어 있어 始祖에 對한 關心이 소홀해지고 系代와 照穆을 가리기에 애매한 점이 없지 않으니 遺憾된 일이라 하겠다. 그러던 중 몇몇 派에서 上系代에 關한 資料를 提示해와 그에 對한 宗門 重鑿들의 累次에 걸친 檢討協議 結果 妥當性이 있어 肯定受容함이 좋겠다는 意見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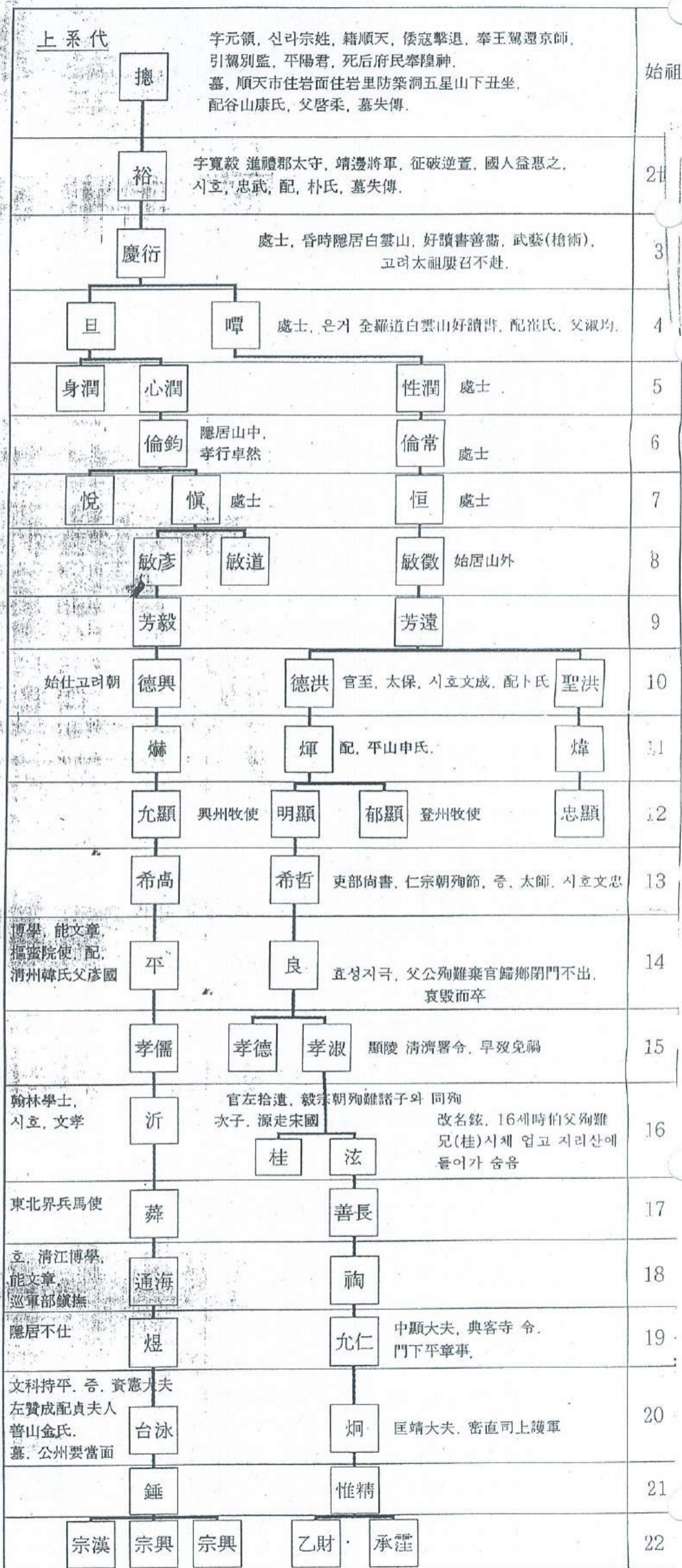
우리 順天金門의 族親은 數的으로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는 現實임에도 몇몇 宗派에서는 系代가 서로 다르게 表現된 派譜를 刊行하여 後孫들로서는 混沌하게 되고 그러한 譜牒들이 順天金氏世譜란 이름으로 公共機關에 備置되어 있으니 한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하루 속히 系代가 統一되게 定立되어 不參한 宗派들도 合譜되게 함으로써 名實相符한 大同譜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여러 顯祖들의 高貴한 行蹟의 傍書가 純 漢文體여서 後孫들로서는 難解하여 龜鑑이 되어야 할 그 內容들이 看過되고 그 難解함은 族譜에 對한 關心을 減少 하게 하니 이를 國·漢子 混用한 國文體로 記述하여 讀解가 容易 하게 함이 좋겠으며, 아울러 甲子譜 以後의 後孫들도 收單하여 後續入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先祖에 對한 關心을 喚起시켜 自矜心을 갖게 하고 그 過程에서 祖上과 族親에 對한 情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個人主義 思潮가 極에 치닫고 있는지라 祖上과 族親에 對한 關心이 稀釋되어가는 現世態를 勘案할 때 人倫의 根本이라 할 수 있는 崇祖敬親意識의 鼓吹와 族親間의 和睦의 增進을 爲해서 모든 族親 特히 新世代 後孫들이 親近하게 接할 수 있고 全體宗派가 合譜된 大同譜가 이루어지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위와 같은 見地에서 몇 部分의 補完을 겸한 重刊을 試圖하게 되었다.

大同譜重刊推進日程			編纂方針
日程	作業內容	主管 部署	
2000년 4월	編纂基本事項協議 專門委員팀 構成	編纂委員會	1.本譜 內容은 甲子譜에 準하여 編纂한다. 2.甲子譜에 未參한 宗派도 參與 合譜한다. 3.既刊譜의 後世를 收單하여 後續 入錄한다.
2000년 4~12월	收單要領協議 收單活動	收單 委員	4.上系代를 根據資料에 依據 補完 定立한다. 5.既刊譜의 內容은 誤謬 漏落 및 變動事項만 補完함을 原則으로 한다.
2001년 6월 한	舊譜檢討 校訂 編輯·筆寫	專門委員 팀	6.本譜牒 體裁는 4×6倍版 橫書 洋裝本으로 한다.
2001년 12월 한	印刷·校訂 製本完了	印刷所 專門委員 팀	7.新 世代 後孫들이 閱讀 理解하기 容易하도록 配慮한다.
2001년 12월부터	印刷本 配布		8.細部事項은 專門委員陣에서 協議處理한다.



# 順天金氏上系에 대한 研究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속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반복되며 국가의 흥망성쇠가 반복됨에 따라 문물제도 등의 신진대사가 되풀이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은 흥망성쇠의 순환하는 이치이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연구로 인하여 옛 것을 알아내고 고증을 통하여 없어진 것을 복원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현명한 인생살이라 하겠다.

온갖 동물 중에서는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기 마련이고 사람들 중에서는 같은 동족들끼리 서로 다정하게 지내기 마련이다. 그런데 아무리 동족이라 하더라도 호형호제(呼兄呼弟)를 하지 못하고 서로 만날 때마다 쑥스럽고 어색함을 느끼게 된다면 남과 다를 것이 뭐 있겠는가. 그러나 문헌의 부족으로 세계(世系)가 분명치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남처럼 대해야 할 쓰라림을 갖는 것은 다대수의 씨족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현실이다.

다른 여러 성씨들을 살펴보면 어떤 성씨는 그 시조를 마치 중국에서 온 높은 벼슬아치처럼 미화하고 있고, 어떤 성씨는 서로들 종파(宗派) 다툼을 하고 있고, 어떤 성씨는 조상을 서로 차지하려고 재판까지 하고 있는 등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 개중에는 더러 고의적으로 하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문헌의 부족으로 빚어지는 것들이다.

우리 순김(順金)은 원래 훌륭한 조상을 모신 씨족이니, 미화할 필요가 없고, 근원이 분명한 씨족에 엄격한 가통(家統)을 이은 자손인지라, 아무 것도 다를 것이 없다. 단지 상계(上系)가 분명치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요도 그리 많지 않은 동족이 대동보(大同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가슴 아플 뿐이다. 이것은 반드시 동족의 화합차원에서 시급히 서둘러야 할 숙명적 과제라 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년 전에 대동보를 시도한 바 있으나 소원대로 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순김이 갈망하고 있는 대동보를 만들기 위하여 순천김씨상계(順天金氏上系)의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順天金氏上系研究資料

### 1. 恩津金思祖家藏世系

金乙財  
典書

子 台泳  
兵曹判書

子 陞  
總制

子 宗漢      子 宗瑞      子 宗興  
判書          左議政 號節齋      參議

戈辰春弼衡至恩津彩雲村宗人思祖等出示其家藏世系圖小冊子而紙色有煙煤氣字?多殘缺處可見其傳來之久遠以此推之似是實錄惟在僉議商量參考之如何耳

### 書信內容(甲申)

至於三月廿五登途小晦抵開元譜所凡例已成刊本且以節齋公載之別譜姪以本家所藏久遠譜牒明白可信者苦口力爭之僉曰恩津所來單子一依家乘其後鎮岑居景祖以交河宗人虛荒之說改修而來吾輩顧駭愕莫能折衷遂入別譜到今追改則似當往復於恩津鎮岑且五卷冊子既成刊本印出數三板而更釐正改寫則當費幾許功力也姑且依此登板以待他年重修時可入錄元譜云云憤惋之極始悔太晚未

### 故 吳明哲 女史 追慕미사 舉行

2月 24日 五週忌를 맞이하여



지난 2月 24日(木) 9시, 故 吳明哲 女史의 5週忌를 맞이하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김근상 신부의 說敎와 執典으로 추모 기념 미사를 엄숙히 거행하였다.

금번 式典에는 고인의 子婦이시고 한화그룹 昇淵회장의 慈堂이신 嘉樂堂 女史, 고인의 四男으로 우리 金門의 中央宗親會 鐘植회장, 고인의 손자인 (주)빙그레의 昊淵회장 등 많은 유족과 종친회의 承淵간사, 浩淵 전 간사장 등 다수가 참석하여 고인의 業德을 기리고 冥福을 빌었다.

女史께서는 國運이 풍전등화갈던 朝鮮말기인 1896년(丙申, 建陽 元年)에 海州人 吳永浩의 따남으로 出生하시고 芳年 二十에 翊贊公派 柯谷公의 12대 손인 故 在民公과 결혼하여 슬하에 四男一女를 두시었다. 長子 鍾哲 白岩公 國會議員 國民黨總裁 二十代 大統領立候補이시고 次子 鍾喜 玄岩公 한화그룹 創業會長 三子 鍾煥 美國 유니온후드社長, 四子 鍾植 虎岩公 제13대 國會議員 現 中央宗親會 會長이시며 女 金永日 彥陽人인 바, 모두가 하나같이 出衆하여 작게는 우리 順金의 門中을 빛내고, 크게는 國威의 宣揚과 國家의 經濟發展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헤마다 이맘때가 되면 吳女史의 발자취를 회고하게 되는 것은 생전에 厚德한 분이시었기에 享壽百年를 누리시었으며, 현명하신 子婦 嘉樂堂 女史의 지극한 孝心 또한 컸음이다. 이렇게 두 분께서는 평소 후덕하셨기에 음덕을 받으신 子孫 承淵 昊淵 형제분은 큰 家業을 이어 받으시고 국가 경제부흥에 이바지하는 인물로 성장하였다.

이 모두가 女史의 天福이시라.

紀年인 1995년(乙亥) 2월 25일(陽) 하 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昇天하신 지 5週忌를 맞이하여 삼가 冥福을 비오니 永世도록 安眠하시옵소서.

克爭執於刊本未成之前也

### 2. 順天金氏世譜(海南派,崇禎五甲午:1894)

#### 金擻

以新羅王孫籍順天官至引駕別監封平陽君墓在順天府住巖面倉村官竹田丑坐墓下有神道碑前後事蹟載於邑誌 配康氏父處士啓柔(新增輿地勝覽 권 40 順天都護府人物 後百濟 條에는 "金擻仕甄萱官至引駕別監死爲府城隍神"이라 되어 있고, 增補文獻備考 권 47 帝系考八 氏族二에는 "順天金氏擻-本新羅宗姓弓裔時爲引駕別監移籍順天封平陽君死爲本府城隍神"이라 되어 있음)

#### 子 裕

字寬毅 諡忠武仕於眞聖女王襲守進禮郡兼靖邊大將軍文武忠義卓冠當世飛椎舞槍所向無敵 唐僖宗光啓癸丑(893)逆萱犯國公奮擊大破逆萱之軍萱脫身逃走改姓名柰石旻爲傭奴氏家(順天金氏鐵原公派世譜引駕公事蹟 條에는 '改名尖石爲傭奴於西海昔氏家'로 됨)及聞公卒復起兵先焚公影幀及遺文卷至戮王鮑石亭公能文善書射數百步外賊將中丸死又善御軍民皆附焉長身大頭圓面秀眼美髯?下有黑子 墓在住巖面倉村白虎甲坐原有表石兼有下馬碑 配朴氏父蘭鳳

#### 子 慶衍

聞新羅王降于高麗隱居山中好讀書能文辭善書兼盡善舞槍之法高麗太祖聞其賢三遣壯節公申崇謙聘之公答曰居吾廬讀吾書以終吾身吾何與於王氏家事乎不就高麗?臣爭請劫之獨請勿迫而止蓋申公之父即公之執友故也申公手寫引駕公忠武公影幀矣其後爲逆萱所焚今之倉即古之書院遺址也墓在住巖面溪上云失傳

#### 子 旦

#### 子 潭

隱居山中讀書筆法華美少氣力云

隱居山中讀敦行孝悌不求名利配崔氏父叔均

#### 子 身潤

#### 子 心潤

#### 子 性潤

#### 子 旭

隱居山中讀書善詞賦

隱居山中讀書能詞賦

隱居白雲山

#### 子 倫鈞

#### 子 倫常

始居山外

隱居山中道德卓冠于世

#### 子 愼

#### 子 恒

#### 子 敏彥子

隱居山中不求名利

#### 子 敏徵

#### 子 敏道

## 인사의 말씀



### 金斗熙

월담사 수호관리사업회 회장 겸 월담사 도유사

막중한 종사(宗事)를 아끼는 능력도 없는 저에게 맡기 주시니 감당하기 어렵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힘이 되는 데까지 수행할 것임을 다짐하며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순천 김씨는 전국적으로 본관(本貫)이 있는 3,345 성씨(274 성씨)중 못 안되는 부조묘를 지키는 씨족 중의 하나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불천지위(不遷之位)의 선조를 모시는 사당의 훼손(毀撤)도 되었다가 또다시 복원(復元)도 되는 등, 그 우상이 다소 추락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씨족의 역사상 이러한 훌륭한 선조가 계셨다는 점에서 그 씨족의 자랑스러운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오늘의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살며, 그 씨족마다 깊은 뿌리를 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월담사(月潭祠)는 나라의 허락을 받은 불천지위 양경공(楊景公) 조(祖)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우리 순천 김문(金門)의 자랑스러운 사당(祠堂)입니다. 현재 우리 순천 김씨는 통계청의 씨족별 인구 통계에 의하면(1985년 현재) 전 인구의 약 0.4%에 불과한 45,622명이 11,092 가구(家口)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천지위를 모시는 부조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씨족의 긍지와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사당(祠堂)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는 양경공의 후손으로서 양경공 양위분을 추모(追慕)하는 행사로 해마다 4번 수행해 왔습니다. 그 중 2번은 양위분 기제(忌祭)이고 또 2번은 매년 춘추로 드리는 다례(茶禮) 향사(享祀)입니다. 만 그동안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역시 우리 문중에도 점차 제관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양경공 조의 몇가지에 불과한 유품(遺品)이지만 보다 차원 높게 문화재로 등

隱居山中好讀書不求名利墓在住巖面溪上云失傳

#### 子 旭

隱居山中敦行孝悌墓在先考墓下

#### 子 尙潤

#### 女 尙嫫

隱居謹祭祭祀

伏刀死節夫卒世柔投水死

20世孫璋

始居山外  
 子 芳毅 子 芳遠  
 孝悌卓然爲世所稱

子 德興 子 德洪 子 益洪 子 聖洪  
 始仕高麗 始仕高麗 始仕以典州牧年荒賑資憐 始仕高麗  
 其民困不忍催糶按使責之  
 棄官而去

子 輝 子 煒 子 煌  
 平章事 侍中

子 明顯 子 郁顯 子 忠顯  
 諫議大夫 左司尹

子 希哲  
 高麗仁宗朝吏部尙書忠清  
 貞直爭引用賢良以衛王室  
 群奸憚之逆臣資謙等矯旨  
 勒賜鳩酒及毅宗卽位夙聞  
 公忠良悼其冤死賜祭以慰  
 之贈太師諡文忠墓在豐德  
 昭理山毅宗以公忠良枉遭  
 讒害悼念不已後特召長孫  
 孝德官之

子 良  
 孝子痛父非靠遂去京師退去  
 關西杜門哀毀而終墓在龍岡

子 孝德 子 孝淑  
 左拾遺忠直剛直極諫毅宗之  
 悖惑王甚厭之逆臣仲夫等罪  
 之下獄三閱月王乃知之月餘  
 逆臣又囚之王命放之是夜逆  
 臣使其使搏殺獄中仍屠其宗  
 族

子 桂 子 源 子 滄 子 汝  
 爲逆臣所害 初疑逆臣矯旨召語  
 配崔氏投井 兄曰父在獄中王何  
 而死 以召我兄弟乃持弓  
 矢射殺賊徒逃走與  
 李補闕明練從子并  
 力奪父尸藏深山乘  
 舟入宋云後孫鉉鎔  
 崇禎甲申0死節

子 善長  
 子 禎  
 子 允仁

록하여 관리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마침내 월담사에 보관하던 회맹록권만을 우선적으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309호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 보관이 난제로 떠오르게 되자 그 해결점을 찾는 의미에서 바야흐로 월담사 수호관리사업회가 전국의 양경공의 후손중 137명의 발기로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발기문 참조)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앞으로는 비록 손이 닿지 않아 미처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히 양경공 후손이면 누구나 능력이 있는 한 이 사업을 적극 후원하리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곧 위임받은 조직체구성과 연락처를 우선 발기인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바라마지 않으며, 우리의 송조사상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말로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金料元 宗親  
 大韓醫師協會 會長 被選



光州에서 神經外科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料元 종친께서는 2000년 새해에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제 3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料元 종친은 正郎公派 望美堂公 諱孝孫의 15代孫으로 1935년 乙亥, 海南 山二에서 松湖公 鎮河의 次男으로 出生하여 諱名은 聖源이며 玄山이라 雅號하였다. 일찌기 全南大學校 醫科大學을 졸업 후 醫學博士學位를 취득하고 光州에서 神經外科를 개원하면서 다년간 母校와 延世大의 外來教授를 역임하였으며 中央 宗親會 創立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副會長으로서 本宗親會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특히 崇祖 愛族 思想이 투철하여 갖가지 爲先事에 夙夜匪懈하여 우리 一族의 모범이 되었으며 驪陽人 陳鳳禮 女史와 슬하에 二男二女를 두고 다복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 큰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3. 順天金氏鐵原公派世譜(永曆五辛丑:1901)

一世 始祖 聰(舊譜에는 攄, 誌石에는 聰으로 됨)  
 初諱攄字元領官引駕別監平陽君封順天伯  
 仍籍焉0墓本府富有面倉村坊築洞五星山下

丑原  
配夫人谷山康氏處士啓柔女墓府西住岩倉  
(村자 빠집)官竹田云而今失傳

二世 子 裕  
字寬毅官進禮郡太守諡忠武有影幀及遺文  
配朴氏

三世 子 慶衍  
處士隱居山中好讀書善書畫兼解武槍之法  
麗太祖聞其賢遣申崇謙三聘之公答曰居吾  
廬讀吾書從吾所好以歿吾寧何與於王氏家  
事竟不起麗功臣爭請恫之以威武申公獨請  
勿迫而止申公之父即公之執友也公手寫父  
公眞影其後爲逆蓋所焚

四世 子 旦  
公後孫宗瑞我太宗朝官左相癸酉殉節即  
台泳孫子也

五世 子 身潤(心潤)

六世

七世

八世

九世 子 芳遠

十世 子 德洪  
號素軒始仕高麗官至太保諡文成  
配卜氏父注書譜缺失名

十一世 子 輝  
配平山申氏  
配趙氏

十二世 子 明顯 郁顯  
官興州牧使 官鄧州牧使

十三世 子 希哲  
官吏部尙書仁宗朝  
殉難毅宗朝贈太師  
諡文忠

十四世 子 良  
公孝性極至痛父親殉難  
棄官歸鄉閉戶不出哀毀  
而歿

十五世 子 孝德 孝淑  
官左拾遺毅宗朝殉難諸子 顯陵清齋署令早歿免禍  
同殉次子源走大宋

十六世 子 桂 法  
早夭總殮而亂作其 改名鉉年十六遭伯父殉難負兄尸超  
配朴氏投井死 藩逃之追兵不能及賊捕甚急公竄四  
方終隱於雲峯智異山配礪山宋氏

十七世 子 善長

十八世 子 禔

十九世 子 允仁

子 潭  
處士隱於全羅道白雲山  
配崔氏父淑均

子 性潤

處士

子 倫常

處士

子 恒

處士

子 敏徵

始居山外

聖洪

子 煒

子 忠顯

### 金志彥 (襄景公 22世)

醫學博士學位 取得  
大邱曉星 가톨릭 醫科大學 助教授로 拔擢

金志彥 박사는 1988년 2월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자 동 부속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종군한 바 있다. 1992년 예편하면서 다시 모교 신경과에 입국, 1996년에 동 전공의 과정을 마치자 신경과 전문의사가 되어 계명대학교 의료원 신경과 연구강사 2년, 전임강사 2년을 거치면서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2000년 2월 25일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년 3월에 대구 효성 가톨릭대학교 의료원 신경과 조교수로 승진 이동하였다. 그리고 김 박사는 본 영남 지역 중친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斗熙 박사의 장남이다. 그世系를 보면 襄景公 22世, 翊贊公 20世, 忍白堂 16世, 郡守公 14세이다. 生家로는 김 박사의 尙祖父가 入養됨으로써 東籬公 15세가 된다.

金泰均 宗親(金麟變氏 長男 31세)은 高麗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고 第 41回 司法考試에 合格하여 司法研修院에서 研修 中이다. 判事公 19代孫 "均"字 行列로서 原鄉은 安東이다.

順天金氏 嶺南地域 宗親會  
會長 金 嘉 淵

### 原稿 寄稿 要望

順天金氏 宗譜에 게제할 원고를 募集 하오니 宗親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祖上님에 대한 行蹟과 恩惠 및 考證 資料에 관한 건
2. 宗派 및 宗會의 現況 및 活動에 관한 內容
3. 宗員의 教養을 위한 內容
4. 모든 宗員의 專門分野別 參考할만한 글
5. 孝行, 善行 등 우리 문중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
6. 그밖의 詩·紀行文·隨筆

위와 같은 內容의 原稿를 보내주시면 宗譜에 게제하여 널리 알리겠습니다.

#### 參考

<순천김씨철원공파세보>의 인가공사적(引駕公事蹟) 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

“自引駕公至典客公以上十七代失傳矣安山族祖百鍊博涉經史尤善人家譜派乃參考歷代諸書繼承

昭穆派甚分明故騰于家乘而不入於原譜刊行中今依改正”

이상과 같은 '自引駕公...今依改正' 은 <순천김씨철원공파세보>에 실려진 상계(上系)를 신게 된 이유를 밝힌 말인 듯하나 기록의 소략(疎略)으로 그 내력을 자세히 알 수 없다.

### 4. 順天金氏世系(節齋公派,丙午:光武10, 1906)

始祖英珣新羅文班貞察

#### 一世 摠

字元領以新羅宗姓籍順天官至引駕府左別監與右別監同擊倭寇奉王駕還京師昇平府院君封平陽君墓順天府南富有面住岩倉村白虎官竹田

#### 二世 子 裕

字寬毅進禮郡守兼靖邊將軍忠武軍征破逆萱萱逃之西海備丐及公卒復起犯國國人益惠之

#### 三世 子 慶衍

處士有文武才以時昏亂隱居白雲山高麗太祖屢召之不赴

四世 子 旦 譚  
處士公 他派

五世 子 身閏 心閏  
無后 處士公

六世 子 倫鈞  
處士公

七世 子 悅 慎  
無后 處士公

八世 子 敏彥 敏道  
他派

九世 子 芳毅

十世 子 德興

十一世 子 赫

十二世 子 允顯

十三世 子 希高

十四世 子 平

忠貞清亮博學能文章直史館明宗二年癸巳復僻之亂(金甫當)之難坐於妻父之故黜之隱于白雲山神宗二年召拜參知事九月同知貢舉取士三十一人配韓氏忠臣

彥國之女

十五世 子 孝儒

十六世 子 沂

十九登第三十一以翰林學士謚文孝公

十七世 子 薺

東北界兵馬使

十八世 子 通海

巡軍府鎮撫號清江博學能文章

配尹氏

十九世 子 煜

隱居不仕

二十世 子 台泳

### 5. 英珣(大輔公四十二世孫)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김동전씨 소장)

## 金相權 宗親

### 教育部次官 任命



새천년 1月27日 金大中 大統領은 名祖 南隱公의 16代 孫으로 中央宗親會 運營委員 相權 宗親을 教育部 次官에 任命하였다. 相權 宗親은 海남에서 出生 光州 師範學校卒

業, 國際大學 卒業, 高大 教育大學院 修了, 서울 大教授, 教育部監査 擔當官, 公報官, 大學教育 政策官, 京畿道 副教育監을 두루 歷任.

서울市 副教育監 在職中 새천년 1月 次官級 人事時에 教育部 次官으로 任命되었다. 相權 宗親은 오로지 國家 教育 發展에만 獻身한 나라의 棟梁之材로 宗親의 無窮한 發展과 삼가 幸運을 頂다.

위로 老母 朴愛順여사(85歲)를 모시고 梁明宇 女史와 사이에 1男1女를 둔 幸福한 家庭의 家長 이시다.

## 만남은 기쁨의 눈물

지난 세(歲)밑 어느날 아침이었다. 살을 에이듯 몹시도 추운 날씨에 예순 전후로 보이는 한 초로(初老)가 중앙종친회의 회장실을 찾았다. 본인은 평양(平壤)에서 태어났고, 세 살이 되는 해에 아버지를 따라서 압록강을 건너 일생을 중국에서 살다가 수년전에 입국하여 현재 수원(水原)에 체류하고 있는 일가로써 이름은 金忠鉉이라 하였다.

여느때 처럼 이른 새벽 등산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어느집앞 대문께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우편봉투를 발길로 툭차서 뒤집어 보았더니 "順天金氏宗譜"라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쳐왔다. 반갑고 흥분된 마음에 집에 들고 와서 전화를 하였고, 위치를 확인하여 찾아오는 길이라 하였다.

아버지의 이름은 鍾五, 형의 이름은 曰鉉, 그리고 순천김씨로서 선향(先鄉)이 평양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60여 한평생을 해외에서 살면서 황량한 중국땅에서나 낯선 고국땅에서도 순천김씨 성을 가진 종친을 한번도 만나 본일이 없으며, 일찌기 상계(上系)문제나 선조(先祖)등 종사(宗事)에 관하여 배운바도 없다고 하였다.

혹시 철원공파의 후손이 아닐까 싶어 銘桓종친께서 이와 같은 사정을 전화로 상의하였다. 잠시 후 다시 걸려온 전화로 상계를 알려왔다. 조선조 초기에 평안도 순천(順川)으로 이주(移住)하신 철원(鐵原)공 휘 玉의 장손인 휘 禮遜의 후예로서 증조부는 致治, 조부는 儀鳳이며 형 曰鉉과 함께 1937년에 간행된 철원공파 丁丑譜에 入錄(入錄 낯선)되어 있다고 확인하였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忠鉉종친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다. 붉게 상기된 얼굴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 내렸다. 평생에 걸쳐 알고자 했던 뿌리를 찾은 기쁨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종친들도 한 순간 찌릿한 전율을 느꼈다.

- 730 760 790 820 850 880 910 940 970
1. 摠 2. 裕 3. 慶衍 4. 旦 5. 身潤 6. 倫鈞 7. 悅·慎 8. 敏彥 9. 芳毅
- 1000 1030 1060 1090 1120(1205음년, 85) 1150 1180 1210 1240
10. 德興 11. 熾 12. 允顯 13. 希高 14. 平 15. 孝儒 16. 近(?沂) 17. 舜 18. 通海
10. 德洪 11. 輝 12. 明顯 13. 希哲 14. 良 15. 孝德·孝淑 16. 滋 17. 善長 18. 禎
- 1270 1300 1330 1360 1390(공양왕 2)-1453(단종 1)
19. 煜 20. 台泳 21. 鍾 22. 宗漢·宗瑞·宗興
19. 允仁 20. 洞 21. 惟精 22. 乙財·乙寶

參考

730년은 聖德王 29년, 憲安王은 857년에서 860년.

6. 順天金氏上世系圖

(順天金氏陝川公派譜, 此上系圖出於長湖院八老塔3리鍾洛家)

一世 金之蘭 二世 俟命 三世 英珣 四世 摠 五世 裕

新羅宗親官至舒發韓 諫官 直察 配崔氏 引駕別監 始籍進禮郡 配康氏 進禮郡將軍大破蒼軍蒼

逃走沒姓名詐爲傭奴於 白川郡昔氏家及聞公卒 起兵犯國先焚公影幀遺 文配朴氏

六世 慶衍 七世 旦 八世 心潤 聖潤 九世 倫均 倫常

好讀書隱居山中 隱居山中好讀書 配崔氏父淑均 孝行卓然隱居山中

十世 慎 恒 十一世 敏彥 敏微 十二世 芳毅 芳遠 十三世 德興 德洪

始居山外 始仕高麗 始仕高麗

十四世 0 輝 十五世 00 明顯 十六世 00 希哲 十七世 0 良 十八世 00 孝淑

十九世 0 鉉 二十世 00 善長 二十一世 0 ? 二十二世 台泳 允仁

中顯大夫典客寺令

二十三世 陞 洞 二十四世 宗漢 宗瑞 惟精

都摠制 匡靖大夫 號默齋吏曹判書 左相號節齋 本朝定州牧使麗山君

二十五世 承璿 承璧 承珪 乙財 承霏

戶曹典書 平陽府院君號月潭諡襄景

趙判書觀彬沈參判聖希皆節齋派外孫而此系皆載於兩家譜錄

7. 順天金氏參議公派世系圖

始祖 聰-二世裕-三世慶衍-四世旦- 五世身潤

心潤-六世倫鈞-七世慎-八世敏彥-九世芳毅-十世德

興-十一世0-十二世00-十三世00-十四世0-十五世00-十六世0-十七世00-十八世

0-十九世00-二十世0-二十一世00-二十二世台泳-二十三世鍾-二十四世宗漢·宗瑞

四世 禛-五世聖潤-六世倫常-七世恒-八世敏微-九世芳遠-十世德洪-十一世

輝-十二世明顯-十三世希哲-十四世良-十五世孝德-十六世湘·源

聖洪-十一世煜 孝淑-十六世桂

十九世允仁-二十世洞-二十一世惟精-二十二世乙財

承霏 滋-十七世善長-十八世?-

任員會費 納付明細

김채원	100,000	김락희	50,000
김승연	100,000	김상균	50,000
김달현	200,000	김오현	50,000
김철희	500,000	김동윤	100,000
김두원	500,000	김현정	50,000
김문환	200,000	김병관	50,000
김동수	200,000	김동만	50,000
김광재	금 일 봉	김상근	50,000
김정일	200,000	김서연	50,000
김동철	200,000	김구연	50,000
김상용	500,000	김충환	50,000
김재근	100,000	김상의	50,000
김계재	100,000	김정식	50,000
김두섭	100,000	김석연	50,000
김상용	100,000	김상은	50,000
김동준	1,000,000	김성복	50,000
김병달	100,000	김태수	100,000
김상우	50,000	김백원	50,000
김현국	50,000	김동훈	50,000
김완선	50,000	김재희	50,000
김광주	50,000		

\* 김광재 운영위원장님께서 4월11일 격려차 종친회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성 종친회에서 금일봉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中央宗親會를 찾아주신분

- 1999.12.2 漢喆 경기 성남시
- 12.10 光弘 서울 은평구
- 12.14 相容 광주
- 12.16 基宗 경기 고양시
- 12.17 圭星 경기 남양주
- 12.23 完貞 부산 相容 광주
- 學元 경기 고양시 榮培 서울
- 仁燮 부산 深淵 서울
- 東均 대구 東哲 서울
- 井洙 경기 景南 경기
- 亨民 서울
- 2000.01.03 商應 경기 고양시 炳鑑 서울
- 東哲 서울 東胡 서울
- 光弘 서울 相容 광주
- 2000.01.21 圭南 충남 보령 明在 경기 안양
- 相容 광주 學元 경기 고양시
- 永潤 경기 이천시 于淵 경기 이천시
- 煥植 경기 이천시 炳윤 경기 이천시
- 宇淵 경기 이천시 泰城 전남 해남군
- 亨煥 전남 해남군 讚洙 전남 해남군
- 詒桓 서울 行燁 서울
- 錫淵 경기 안산시
- 2000.01.26 明在 경기 안양시 光弘 서울
- 詒桓 서울
- 01.31 佑永 서울 炳鑑 서울
- 02.02 忠鉉 중국 동포(수원)
- 02.12 明在, 相容, 學元, 行燁, 五淵, 光弘
- 02.14 東臣 서울 송파구
- 02.17 東澤 충남 금산시 浚永 대전
- 炳鑑 서울 강남 學元 경기 고양시
- 東英 전북 임실군 讚洙 전남 해남군
- 榮熙 대구 詒桓 서울
- 明在 경기 안성시
- 02.18 東洙 전남 순천시
- 03.03 喆熙 서울 강남구
- 03.08 達賢 서울
- 2000.03.15 東胡 서울 송파구
- 03.16 相容 광주
- 03.23 井洙 경기 남양주
- 東守 서울 성북구
- 03.25 商興 경기 고양시
- 永駟 남포공파

인사발령

김명환 종친이 2000년 4월 10일자로순천 김씨 중앙종친회 종보 편집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始祖의 記事에 대한 各派 家乘의 比較表  
(시조뿐만 아니라 그 이하도 서술방법이 각각 다름)

海南派

鐵原公派

總: 引駕別監封平陽君配康氏 引駕別監封順天伯配夫人谷山康氏

陝川公派

節齋公派(丙午)

始籍進禮郡配康氏 引駕府左別監與右別監昇平府院君(配位記事없음)

이상과 같은 비교표를 통해 볼 때 각파의 가승은 형태는 물론, 서술방법도 각각 달라지고 있으므로 동일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각각 자기들의 파에 알맞게 작성한 가승이라 하겠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한 곳으로 귀착(歸着)하게는 될 것이다.

또한 이상과 같은 가승들을 분석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의 資料

金乙財

典書

子 台泳

兵曹判書

子 陞

都摠制

子 宗漢

判書

子 宗瑞

左議政 號節齋

子 宗興

參議

參考

襄景公(承靈) 1354(공민왕 3)-1424(세종 6)

節齋公(宗瑞) 1390(공양왕 2)-1453(단종 1)

1의 자료는 절재공(節齋公)이 양경공(襄景公)의 형남인 전서공(典書公:乙財)의 증손으로 되어 있는데, 양경공보다 36세 적은 절재공이 양경공보다 나이가 약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서공의 증손이 되기 어려우므로 이 자료는 채택하기 곤란할 것 같다.

參考

瑞寧柳氏文肅公派世譜

八世 實→九世 惠剛→十世 諍(諍은 順天金氏世譜에 의하면 承珪의 장인임)

惠南

惠和

通政大夫知靈光郡事 配淑夫人順天金氏典書乙財女牧使惟精孫女

이상과 같은 <서령유씨세보>에 의하면 유실(柳實)의 막내아들인 혜화(惠和)가 전서공(典書公)의 사위이므로 이때 전서공의 나이는 유실의 맏아들인 혜강(惠剛)보다 약간 많았을 가능성이 있는 바, 절재공(節齋公)의 맏아들인 승규(承珪)의 장인이자 혜강의 맏아들인 쟁(諍)과는 부자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7의 자료(가승)는 각각 형태나 서술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나 계대(系代)만은 동일하다. 다만 6의 자료(가승)는 절재공의 상계(上系)가 양경공의 상계보다 한 대가 적고, 7의 자료(가승)는 절재공의 상계가 양경공의 상계보다 두 대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인데, 이것은 적을 때에 잘못 적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어떤 사람이 順天金氏鐵原公派世譜의 襄景公事蹟에 있는 '族弟節齋公'의 弟자를 叔자로 개칭한 것은 아마 6의 자료(가승)에 의거한 듯하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건강과 幸運을 빕니다

鳥嶺産業株式會社

社長 昭俺 金 喆 熙

서울特別市 江南區 道谷洞 456-8

電話: (02)572-5059, 573-5968

自宅: 서울特別市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 ㉠ 77-803

電話: (02)543-5439

광 일 공 업 (주)

三星電管(株)의 100ppm 해외인증 제1호공장

代表理事 金 光 在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34-3

전화: (0331) 234-3171~2

FAX: (0331) 235-4518

대 문 목 재 (주)

각종 목재 제조업

代表理事 金 都 淵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567

전화: (032) 577-7733

清溪電業株式會社

動資部承認 第一種電氣工事業 193號

代表理事 金 文 載

서울特別市 中區 水標洞 11-7(清溪빌딩)

本社電話: (02)2265-6558, 2275-0732~3

工場電話: (02)877-6227

自宅電話: (02)877-6244

考證

이상과 같은 가승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조사한 결과 뜻밖에도 김평(金平)의 사실이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高麗史

통권21 世家 권21 神宗 5년(1202) 12월  
金平李自貞竝爲樞密院副使

동 熙宗 乙丑 원년(1205) 4월 辛亥  
樞密院使金平卒

통권73 志 권27 選舉 1 神宗 2년(1199) 9월  
參知政事崔誥知貢舉 秘書監金平同知貢舉 取進士賜崔得儉等三十三人及第

神宗 4년 5월  
簽書樞密院事(?使)岡公珪知貢舉 國子大司成金平同知貢舉 取進士賜崔宗俊等三十三人及第

神宗 5년 5월  
樞密院使金平知貢舉 右承宣趙準同知貢舉 取進士賜黃克中等三十三人明經四人及第

통권74 志28 選舉2 神宗 원년(1198) 4월  
秘書監金平 取詩賦智大成等十九人 十韻詩段世儒等七十二人 明經七人

통권100 列傳권13 奇卓誠傳  
有金平者 少有文名 金甫當之亂 妻父韓彥國被戮 平携妻子隱於昇平郡 及卓誠秉政 以平有才 擢爲直史館

高麗史節要

권 14 神宗靖孝大王 壬戌 5년(1202) 12월  
金平李自貞 竝爲樞密院副使

同 熙宗成孝大王 乙丑 元年(1205) 4월  
樞密院使金平卒 平早有文名 金甫當之亂 其外舅韓彥國被戮 平携妻子 隱於昇平郡 及奇卓誠秉政 以才擢用

5의 資料에 직한  
“趙判書觀彬沈參判聖希皆節齋派外孫而此系皆載於兩家譜錄”

參考  
楊州趙氏族譜(判書 趙觀彬,1691(숙종 17)-1757(영조 33))  
青松沈氏族譜(參判沈聖希,1684(숙종 10)-1747(영조 23))

參考  
<청송심씨대동보(青松沈氏大同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青松沈氏大同譜(安孝公派) 沈溜(沈聖希의 10世祖)

漢城判官0配順天金氏父參議承圭左議政宗瑞孫外祖郡守瑞山柳諍墓  
津藥山庚坐表石書淑人金氏之墓或傳與麻君合葬或云府君墓在仁川皆  
未可信

(株) 東南特殊運輸

代表理事 金東洙

전남 순천시 해룡면 월진리 503-2  
사무실 : (0661) 724-9125~6  
FAX : (0661) 724-9127  
차 택 : (0661) 752-8441  
호 출 : 012-610-8913  
(특수화공약품운송전문) (16K, 18K, 20K, 28K)

金料元神經外科醫院

院長 醫學博士 金料元

病院 : 光州廣城市 東區 錦南路 5街 101  
電話 : (062)228-2471  
自宅 : (062)223-7200

(株) 高麗 바이오스톤

맥황토(건축자재), 녹조 및 적조 수질정화제,  
토양정화제

代表理事 金大永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316  
事務室 電話 : (0581)571-6887  
自宅 : (0581)571-5500

稅務士 金東吾

事務室 : 聞慶市 店村洞 244-8  
電話 : 事務室 (0581)555-4887~8  
(0581)555-2740  
自宅 (0581)555-4031

내외합동법률사무소

辯護士 金亨民

事務室 : 瑞草區 瑞草洞 1678-2  
동아빌라트 2동 403호  
電話 : (02)3477-0654~6  
FAX : (02)3472-4561

考證結果

이상과 같은 가승들이 지평공파(持平公派)·철원공파(鐵原公派)·합천공파(陝川公派)·해남파(海南派)에 두루 소장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바이거니와, 계대(系代)의 순서가 일치한 점도 눈에 거를 문제이며, 또한 경연(慶衍)·담(潭)·성운(性潤)·평(平) 등이 모두 백운산(白雲山)에 은거(隱居)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그것은 <철원공파세보(가승)>의 담(潭)에 대한 기사에 '隱於全羅道白雲山'이라 하였고,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평(平)에 대한 기사에 '平携妻子隱於昇平郡'이라고 한 것을 볼 때, 백운산은 전라도 백운산이고 전라도 백운산은 바로 승주에 있는 백운산인 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으레 고향으로 피신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절재파의 가승에 기록된 평(平)의 사적이 <고려사>·<고려사절요>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平)의 생애에 해당되는 연대에 입각하여 26년을 1세로 쳐서 위로는 시조의 생애에 해당되는 경문왕(景文王)과 현안왕(憲安王)의 연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아래로는 양경공과 절재공의 생애에 해당되는 연대로 내려오며 별표(別表)처럼 세계표(世系表)를 작성해본 결과 그 연대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승들에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 항렬들을 보고 '고려시대에도 항렬이 이처럼 명확할 수가 있을까' 하고 의심을 해보았지만, 그것은 이미 <고려사>에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지은 金富軾(1075-1151)을 비롯하여 金富弼·金富佺·金富儀 등 그의 형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항렬에 대한 의심은 지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심성희(沈聖希)가 절재공의 외손이란 기록도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절재공파의 가승에 실린 평(平)의 기사에 "神宗二年召拜參知政事 九月同知貢舉"라고 한 대문이다. <고려사> 통권 73 권 27 選舉 1 神宗 2년(1199) 9월 조에는 "參知政事崔諶知貢舉 秘書監金平同知貢舉 取進士賜崔得儉等三十三人及第"라고 되어 있으니, 가승의 기사에 있는 참지정사(參知政事)와 <고려사>에 있는 비서감(秘書監)이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九月同知貢舉'는 일치하고 있다. 또한 가승에는 "坐於妻父之故 黜之隱于白雲山"이라 하였고, <고려사>에는 "金甫當之亂 妻父韓彥國被戮 平携妻子隱於昇平郡"이라 하였으며, <고려사절요>에는 "金甫當之亂 其外舅韓彥國被戮 平携妻子隱於昇平郡"이라 하였다. 가승에서는 '백운산(白雲山)'으로 적고, <고려사>에서는 '승평군(昇平郡)'으로 적고 있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보면 순천의 접경인 낙안군(樂安郡)에도 백운산이 있음)

물론 순천김씨의 가승이 <고려사>를 베낀 것이 아니고 조선조 세종 때에 정인지(鄭麟趾, 1396-1478) 등이 지어 올린 <고려사>가 순천김씨의 가승을 이용한 것도 아닐 터이니,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 하겠다. 그리고 벼슬은 인제든지 바뀌게 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1월에서 9월 사이에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가승에 있는 참지정사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2품직이고, 비서감은 비서성(秘書省)의 종3품직인 바, 이 점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라 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각파의 가승과 <고려사>는 각각 다른 자료를 이용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아울러 각파의 가승은 직접적인 자료를, 정인지의 <고려사>는 간접적인 자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무튼 순천김씨 가승의 내용과 <고려사>의 내용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밀접한 관계를 갖은 것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가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증을 하겠거니와, 현재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도 이 가승들이 전연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바, 이들 가승에 의하여 별표처럼 순천김씨상계도(順天金氏上系圖)를 작성해도 무방할 것 같다.

研究者: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專門委員 金東柱

永登浦漢方病院

理事長 金喆俊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永登浦洞4街 153-1  
電話: 678-8225, 678-0848

合同技工社

(전문공사업)

代表 金東胡

사무실: 서울特別市 송파구 가락동 105-6  
전화: (02)409-7723  
FAX: (02)409-7726

稅務士 金沅杰

사무실: 안동시 운봉동 116-29  
사무실: (0571) 856-1773  
자택: (0571)822-4197

(주)근하공영  
(주)홍인운수

代表 金삼근

서울特別市 노원구 공릉동 107-121  
전화: (02)972-2331

● 임원 년회비 수납안내 ●

중앙총회는 임원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년회비와 세대당 년회비, 그리고 篤志 宗親의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期마다 거르지 않고 정성껏 납부하신 회원님과 篤志 宗親의 찬조금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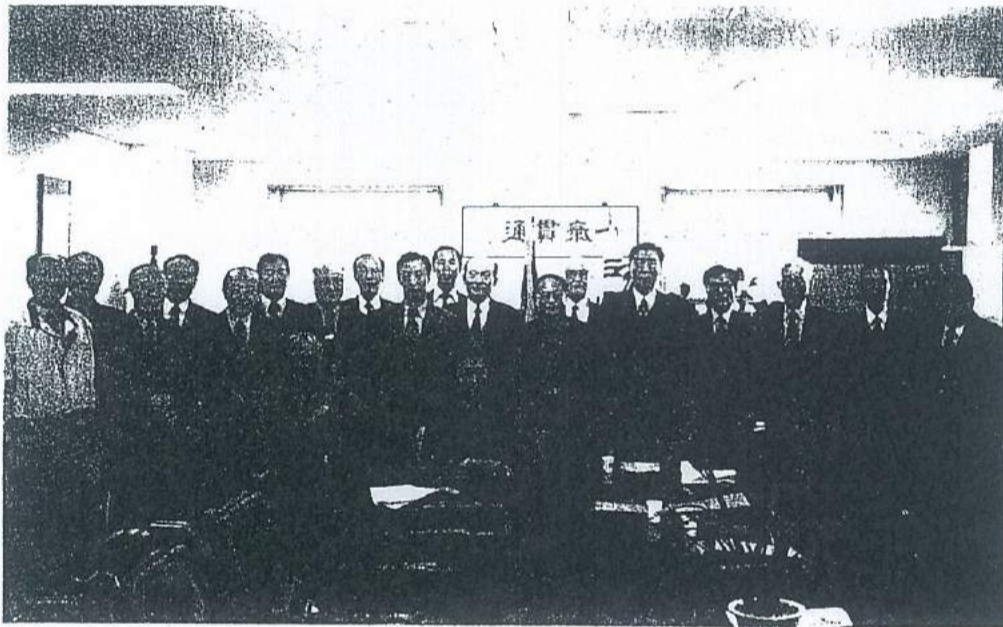
제11기(2000.1.1~12.31)에 납부하셔야 할 임원 년회비는 제9기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회기가 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안내	회장	년	200만원이상
	부회장	년	50만원이상
	운영위원	년	20만원이상
	고문 명예회장	년	10만원이상
	감사 감사 이사	년	10만원
관리인구조직	세대당년회비	년	2만원
	농협	069-01-212885	
	한빛은행	146-003175-02-501	
	우체국	012351-0134884	
	지로번호	7637405	

\*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기록이 누락되어 납부자를 확인하여 담신을 올릴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長)

### 大同譜 編纂에 관한 會議

지난 1월 21일 中央宗親會 會議室에서 各地域 宗親 代表 24名 중 20名 參席 大同譜 編纂關係 最終 會議 時 某 宗親께서 金同柱(韓國精神文化院)와 前 國史編 纂委員 金喆熙氏 두 분의 順天金氏 世譜觀에 대한 肯 定的인 評價書만 받아 오면 서슴없이 大同譜 編纂을 贊成한다는 發言이 있었다.



### 上系에연구 보고 회의

1. 회의 일시 장소 : 2000년 3월 30일 11시 중앙 종친회관
2. 회의 참석 범위 : 대동보 편찬위원 24명
3. 회의 의제 : 순친김씨 上系世대에 관한 연구 보고 (지난 1월 21일 회의때 연속 梁永宗친의 요청)
4. 보고 상황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金東柱 전문위원의 보고서 내용요지
  - 1) 고려사 절요 및 삼국유사 등에 실린 史實 내용과
  - 2) 지평공파 칠원공파 합천공파 世譜 등에 등재된 순친김씨 中上系世대祖의 諱字가 동일하다는 보고서 문건의 설명과 아울러 참석원에게 배부.

### 順天金氏 利川地域 宗親會 發足

2000년 1월 30日 利川地域(廣州, 驪州, 利川, 龍仁)에 居住하는 宗親 80餘名이 參席하여 發足하였다. 本 宗親會의 發足 目的은 宗親간의 親睦과 先祖의 빛나는 業績과 墳墓, 遺蹟, 遺物을 後孫에게 알려 崇祖思想을 높이고자 함이다.

本會의 任員陣은

會長 : 于淵,

副會長 : 大淵, 炳學,

總務 : 永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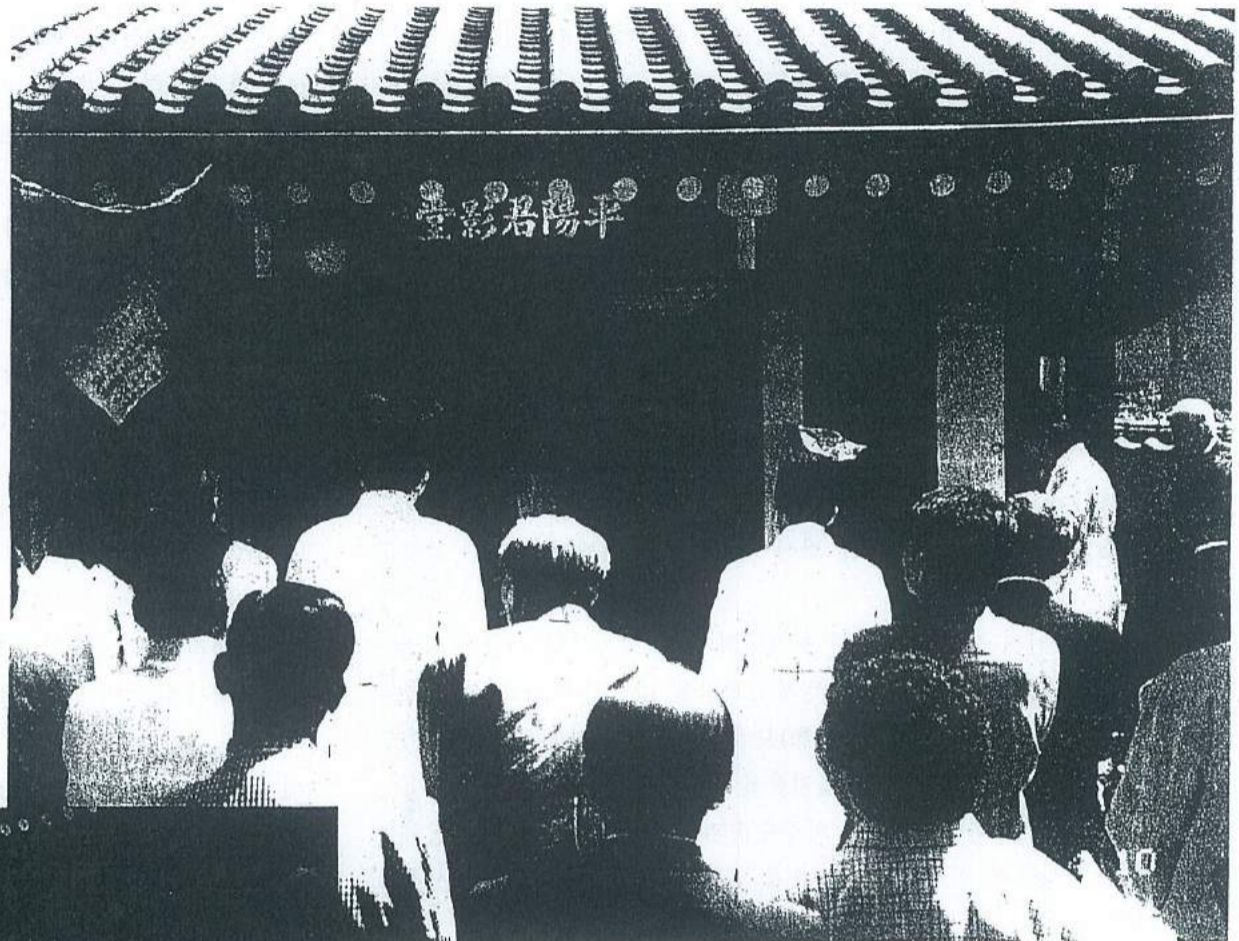
監事 : 文植, 東一

을 選出하고, 앞으로 더욱 團結하여 地域 宗親의 模範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同年 2月 3日 任員陣 全員이 參席한 가운데 利川市 관고리 6의 7에서 利川地域 宗親會 現판식을 가졌다.



# 4月10日, 始祖 影堂 春享祭 舉行

4월 10일(음 3월 6일) 전남 승주군 암면에 위치한 우리 金門의 시조(始) 평양군(平陽君)의 영당(影堂)에서 전국의 각처로부터 35여 종친(宗)들이 참여한 가운데 춘향제(春享祭) 엄숙히 거행하였다. 오전 11시 20에 시작된 제례(祭禮)는 일산 칠영(永) 종친의 집례(執禮)로, 초헌관(初獻官)에 종식(鍾植) 中央宗親會長 아관(亞獻官)에 해남 상용(相容) 宗親 헌관(終獻官)에 일산 학원(學元) 宗이 분정(分定)되었고, 서울 영배(榮) 宗親이 독축(讀祝)하였다. 後에 동제 別館 신축(新築)공사 협의(協議) 기념촬영 및 기념식수(記念植樹, 대나무)로 順天金門의 무궁(無窮)한 發과 번창(繁昌)을 祈願하였다.



▲ 始祖 影堂 春享祭 舉行 모습



始祖 影堂 春享祭를 마치고 기념촬영

## 기념 식수(紀念植樹)

지난 4월 1일 남도 순천의 하늘 아래 도시조 할아버지 춘향(春享) 제날 金鍾植 중앙 종친회장은 동원재 앞 마당 한가장자리에 커다란 대추나무 8년생 한 그루를 심어 놓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환하게 웃었다.

식수는 국가 백년대계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심는 대추나무 역시 후세의 자손들을 위한 것, 삼복염천에 가진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열리는 대추 효(孝)의 근본으로 삼아 제삿상에 올린다가 새 천년 봄을 맞아 유난히 심고 싶었던 이 대추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년 가을엔 제법 많이 열려서 할아버지 제삿상에 듬뿍 올리게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 기념식수 표석(標石) 기념식수 모습 ▶



# 月潭詞 正月 茶禮 嚴修

지난 2월 19일 (음 正月 15日), 우리 순천 김문의 중흥조이신 양경공 (襄景公)조의 부조묘(不祧廟) 월담사(月潭祠)의 정월 차례(茶禮)를 엄숙히 거행하였다.

멀리 해남, 광주와 남원 그리고 서울 등지에서 새벽길을 달려온 60여 종친이 참사한 가운데 계영 종친의 집례(執禮)로 대전의 수영(浚永) 전 도유사가 초헌관, 대구의 가연(嘉淵) 영남종친 회장이 아헌관, 서울에서 참사한 철원공(鐵原公)파의 명환(銘桓)종친이 종헌관의 순으로 헌작하고 부산의 인섭(인섭)종친이 축문을 봉독하였다.

특히 남원의 춘희(春熙)종친은 제례절차의 시종을 주관하는 도집례(都執禮)의 역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음복(飲福)이 끝날 무렵부터 (기칭) 월담사 수호사업회의 발기대회가 발기인 137명의 참석 및 위임을 받아 개최되었다. (발기인 명단 별도 배부)

철영(哲永)종친의 사회로 진행된 발기대회는 전 도유사인 수영 대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종식(鍾植) 중앙종친회장을 대신하여 영희(榮熙)부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두희(斗熙)도유사의 경과 보고가 계속 되었다. 곧이어 월담사 수호사업회의 발기문을 낭독, 결의하고 회칙(會則)을 축조심(逐條審議)하여 회칙의 자구수정과 會則에 따른 임원선정을 전, 현임 도유사에게 위임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발기대회를 무사히 마쳤다.

이날 결의된 발기문은 다음과 같다

## 월담사 수호관리 사업회 발기문

2000년 2월 19일

朝鮮 哲宗 7(1855)년, 御諱 및 三盟之臣 會盟錄과 不祧廟가 鶴泉으로 옮겨올 당시에도 聞慶縣監과 道 巡禮使가 手決한 完文에 의하면 이를 守護하기 위하여 상당한 心的 物的 配慮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5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數次에 걸쳐 重修를 거듭하면서 下賜받은 財가 점차 감소하여 지금 남아있는 位土가 는 598명에 불과한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세를 거듭함으로써 그 情誠이 점차 稀釋되어 온 까닭이라 생각되며 우선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崇祖思想을 고취하고 옛 문화를 기리는 의미에서 최근에 前 有司 浚永 宗人과 別有司 故 周熙 宗人등, 뜻있는 종인들 몇몇이 모여 그동안 우리들의 不祧廟인 祠堂에 보관되어 오던 御諱와 함께 66명의 開國, 定社, 佐命 三盟之臣이 手決한 會盟錄 板本과 개인이 소장중인 遺物 龍纓, 龍硯과 寶刀 등을 文化財로 등록 보존하자는 의견에 합의하고 斗熙 宗人등의 주축으로 추진한 바 우선 會盟錄만을 慶尙北道 他方文化財로 등록을 하게되었습니다만 이 會盟錄을 祠堂에 保管管理 하겠다는 조건이 부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文煥 宗人으로부터 垆地 使用 承諾書를 받고 聞慶 宗親會의 聖熙 大永 東哲 東賢 등 宗人의 協力으로 祠堂建물이 正로 聞慶市 建物臺帳에 登載되었습니다. 그러나 祠堂이 너무나 허술하여 補修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補助建物を 造成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頹落되어 가는 祠堂의 補修를 하고 正화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약 2億원 내외가 예상이 됩니다만 現在 基金이 겨우 1千 3百餘萬원 (수년 전 載俊 宗親 喜捨金 500萬원이 起爆)이 조성되었고 그 조성속도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고로 지금부터라도 全 子孫들의 丹誠을 모아 計劃을 세워 確保해 놓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嶺南地域 宗親會에서 己卯 重陽節 享祀부터 연 2회에 걸쳐 계속 祭需費를 보조하겠다는 의지는 큰 힘이 되었으며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襄景公 先祖의 後孫된 사람은 모두가 率先해서 守護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에 우선 손이 닿는 뜻을 함께하는 후손들 몇 명이 모여 지금 조성 사업과 더불어 사업 추진을 위해 發起합니다. 혹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하신 종친도 서슴치 마시고 적극적인 同參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 일리는 말씀

현재 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 종친(宗親)들의 현주소(現住所)가 많이 누락(漏落)되고 변경(變更)되어 종보(宗譜)의 발송등 일반 중중사(宗中事)의 연락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종친회에서는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여 전국 종친(宗親)들의 주소록(住所錄)을 재정비(再整備)코저 하오니, 이미 연락을 드린바와 같이 각지역 종친회(各地域 宗親會) 과종회(派宗會)의 임원(任員)에서 누락(漏落)되었던 종친과 특히 정년(成年)이 되어 분가(分家)하고 새로운 일가(一家)를 창립(創立)한 종친들에게 빠짐없이 연락을 하시어 종친회에 등록(登錄)을 하고, 다함께 힘을 합쳐 종사(宗事)를 도모(圖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많은 탓으로 이름을 한자(漢字)로 표기(表記)하여 주시되 주소(住所)와 전화번호를 함께 통보하여 주시고, 전화(02-400-2501~2)나 팩스(02-400-2505)로 연락을 주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幹事長 五淵 아림



건강을 위해 한번 더, 맛을 위해 하나 더  
 고객의 만족과 최고의 제품을 위해  
 빙그레가 앞서갑니다

## 새로운 발상으로 한발 앞선 제품을 선보여온 빙그레의 연구개발 정신입니다

빙그레의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제품은 더 좋은 제품에 대한 도전정신과 연구개발의 열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목장에서 직접 집유한 생우유를 사용해 만든 아이스크림 투게더,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캡슐 요구르트 닥터캡슐, 새로운 차원의 가공우유 바나나맛 우유, 100% 콩기름 라면 매운콩라면 등 고객이 원하는 보다 나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빙그레의 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식품의 역사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B** 빙그레

Frankfurt

세계 투자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한화증권 투자정보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 neural network

뉴럴 네트워크

## 한화증권에서 전략있는 투자로 앞서가세요

한화증권은 세계 투자흐름을 읽고  
고객 한 분 한 분의 투자전략을 세웁니다.

뉴욕, 프랑크푸르트, 동경, 홍콩! 세계 투자의 중심지를 직접 연결하여  
세계 투자의 흐름을 실시간에 분석하는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  
한화증권은 전세계를 신경망처럼 연결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투자정보는 물론 세계 투자흐름까지 신속하게 분석해서, 고객께서 원하시는  
투자형태에 따라 4인의 분야별 전문가(증시분석, 투자 타이밍, 고수익 투자,  
투자안전진단)가 직접 고객 한 분 한 분의 투자전략을 세워드립니다.

■ 한화증권은 성공투자로 보답합니다



### 투자전략이 강하다!



## 한화증권

<http://www.koreastock.co.kr>

■ 대표전화: (02)3772-7000

